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3면	“2024청소년동계·파리올림픽 강원체육 저력 빛내는 무대...	1
강원도민일보	24면	강원체육인의 밤 4개 부문 유공자 37명 수상	2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권혁열(강릉) 도의장	3
江原日報	01면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원자치도민 합심해 유치 ...	4
江原日報	02면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원협의체 발족식	4
강원도민일보	02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강원 민관산학 뭉쳤다	5
江原日報	17면	횡성소방서 의소대 활동성과 보고회	5
江原日報	온라인	원주지역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송년 연찬회 개최	6
강원도민일보	20면	이지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7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이지영 도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	7
엔사이드	온라인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	8
MBC 강원영동	온라인	삼척 도계 지역 소멸 대응 '유학생 유치'	9
江原日報	22면	철원 와수복합어울림센터 개관	10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원제용 도의원 지방의정활동 최우수 도의원상	10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유순옥(비례) 도의원	11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11
강원도민일보	19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1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물 부위원장	11
江原日報	01면	도내 신생 기업 '3곳 중 1곳' 일년도 못 버티고 문 닫아	12
강원도민일보	01면	오늘 강원 곳곳 기후위기 극복 선도 도민운동 확산	12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내년 국비 9조6000억원 확보 첨단산업 대거 반영	13
江原日報	07면	올해 최다 방문 여행지 '속초관광수산물시장'	14
강원도민일보	04면	영월 분덕재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터널공사 중단되...	14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시, 팽리스 반도체 산업 물꼬	15
강원도민일보	05면	동해안 해맞이 명소 17만명 운집 예상... 안전에 '만전'	15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 대책 필요	16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극강 한파 추가 사망 피해 없어야	17

江原日報	25면	[사설] 강원 의료기기 수출 역대 최고, '글로벌특구' 지정을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거꾸로 가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19



◇2023 강원 체육인의 밤 행사가 21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웨딩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및 도의원, 양희구 도체육회장을 비롯한 도내 체육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2024청소년동계·파리올림픽 강원체육 저력 빛내는 무대로”

‘강원 체육인의 밤’ 행사 유공자 시상·표창 전달

강원체육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강원체육을 빛낸 유공자들을 축하하는 ‘2023 강원 체육인의 밤’ 행사가 21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웨딩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와 양희구 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권혁열 도의장, 신춘구 도민회중
양회 상임부회장, 이금선 강원경
제인연합회장, 안정희 강원여성
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12개
시·군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
장, 지도자, 선수, 체육 관계자 등
320여명이 참석했다. 양희구 회
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특별
자치시대를 맞아 여러 성과가 있
었던 한 해였다”며 “부족했던 부
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을 강구해 강원체육의 비상과 위
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다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항저우 아
시안게임, 전국체전, 강원FC 잔
류 등을 올 한 해 강원 체육에 많은

일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파리올림픽
등 더 큰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
다. 강원 전사들에게 많은 응원
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혁
열 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강원 체육의 저력을 보여 주시
고 혼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모
습에 도민들은 희망을 얻었다”
며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통과
시킨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명시된 체육회 예산 지
원 의무조항이 반드시 실행되도
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체
육상 시상식과 올 10월 전남에서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
회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강원체육상’ 수상의 영예는
박우림 속초여고 육상선수(우수
선수 개인 부문), 양구고 테니스
팀(우수선수 단체 부문) 등에게
돌아갔다. 또 최선근 도육상연맹
회장을 비롯한 7명은 강원체육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강원체육상 수상자 명단과 전국체
전 유공자 포상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24



2023 강원체육인의밤 행사가 21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시·도의원, 도체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원체육인의 밤 4개 부문 유공자 37명 수상

본지에 감사패 전달

올 한 해 강원체육을 빛낸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2023 강원체육인의 밤' 행사가 21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심영근·정재웅·박기영·이무철·박관희·원제용·양숙희·김희철·임미선·박찬흥·박대현 도의원, 신춘구 도민회중앙회 상임부회장, 경민

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이금선 강원경제인연합회장, 안정희 강원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12개 시·군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지도자, 선수, 체육관계자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은 강원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관기관, 회원단체 임직원, 선수, 지도자 등 4개 부문에 37명이 표창장과 감사패, 공로패를 대표 수상했다. 또 우수선수 6명과 우수체육팀 1팀 등 미래 강원체육인재에게는 도민회중앙회금

강장학회 (900만원)와 강원산업 (1000만원)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강원체육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은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신춘구 강원산업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내년에도 더 나은 체육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내년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물론이고 파리올림픽이 기다리고 있다. 강원 전사들이 메달사냥에 나서는데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예섭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11

백화점에서 열리는 강릉재향소방동우회간담회에 참석, 의견을 청취한다.



권혁열(강릉) 도의장은 22일 오후 6시 강릉한우

江原日報

01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원자치도민 합심해 유치 도전”

도·춘천시·홍천군 ‘범도민 유치지원협의체’ 발족

국회·도의회·유관 기관 비롯 언론·기업·지역 대표 등 참여 내년 상반기 지정 위해 총력전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홍천군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지원협의체를 결성하고 도민 결집에 나섰다.

도는 21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첨단바이오산업벨트,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지원협의체 발족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와 도의회, 유관 기관, 언론, 기업,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도민 유치지원협의체는 이날 출범과 함께 내년 상반기로 예고된 정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발족식에는 김진태 지사,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김현영 강원대 총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강일준 한림대 산학부총장, 이무철, 박기영, 박관희, 이영욱 도의원, 전영

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도지부장, 정준화 시·군번영회연합회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권오광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협의체는 발족선언을 통해 “늘 소외되어 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뜻을 모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강원자치도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개 분야를 지정했다. 올해 7월에는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반도체),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이차전지), 충남 천안, 아산(디스플레이)을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02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원협의체 발족식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지원협의체 발족식 및 포럼이 21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김진태 지사, 유상범 국회의원, 김현영 강원대 총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발족선언문 낭독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강원 민관산학 뭉쳤다

도·춘천시·홍천군·강원TP 등
지원협의체 발족·포럼 진행
범도민 차원 총력 의지 결집

속보=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원협의체(본지 12월 19일자 2면)가 21일 발족, 춘천시·홍천군을 중심으로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범도민 차원의 총력전이 펼쳐진다.

협의체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도(춘천·홍천) 지정을 목표로 인·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해 인천송도·충북 오송등을 제치고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춘천시와 홍천군,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강원대에서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원협의체 발족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원협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지원협의체 발족식이 21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유상범 국회의원, 신영재 홍천군수,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정호

의체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민·관·산·학 협의체이다. 바이오 분야 혁신기관·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한

다. 최종 지정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이날 열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협의체 발족식·포럼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유상범 국회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김현영 강원대총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자들은 춘천시·홍천군의 바이오 산업 역량을 짚으며 특화단지의 강원도 지정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인천 송도가 바이오가 가장 앞서고, (특화단지 지정에) 충북 오송도 나서는 등 전국적인 각축장이 예상된다”며 “춘천 바이오 산업과 홍

천의 국가항체 클러스터 등 못할 게 없다. 가용한 도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특화단지를 따와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회의원도 “바이오 특화단지가 강원도에 지정된다면 강원도 생태계는 과거의 산림과 자연의 한계에 벗어나 지역 특화형 첨단미래 도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은 “강원도의회는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협조해 강원도 미래를 밝히는 산실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현영 강원대 총장은 “춘천시는 전국 최초 생물산업 시범도시로 조성됐고 현재 1조원대의 매출과 3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강원대학교는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고 강원도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과 춘천시가 손을 맞잡는다면 바이오 특화단지를 강원도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횡성소방서 의소대 활동성과 보고회 횡성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성과 보고회가 21일 향교웨딩홀에서 김명기 군수,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의소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2 21 ()

江原日報

원주지역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송년 연찬회 개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포상 및 감사패
이날 박태선 사무국장 퇴임식도 거행돼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회장:유종우)는 21일 치악예술관에서 노인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송년 연찬회를 진행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회장:유종우)는 21일 치악예술관에서 노인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송년 연찬회를 진행했다.

원주 원주지역 내 노인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송년 연찬회’가 21일 치악예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종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장을 비롯해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바팜스양상들의 색소폰 연주와 감사패 전달, 노인강령 낭독, 포상, 축사, 경로당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산동 한라비발디 1차 경로당이 최우수 모범 경로당 포상을 수여받았으며, 명륜2동 동보노빌리티 1차, 단구동 관후 경로당이 우수상, 지정면 이지더원 1차와 흥업면 보춘경로당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이충복, 김효웅씨를 비롯한 경로당 관계자들이 제12회 한국향토문화 미술대전 및 노인자원봉사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이어 오후에는 박태선 사무국장 퇴임식이 진행됐다. 박 사무국장은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퇴임한 이후 노인회에 몸을 담아 8년 6개월동안 지역 내 노인 복지를 높이는데 힘썼다.

유종우 회장은 “지난 1년동안 원주를 위해 힘써 준 노인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노인 복지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20

이지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이지영(비례·사진) 강원 특별자치도의회원이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설화

2023 12 21 ()

江原日報

[포토뉴스] 이지영 도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이지영(더민주·비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국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2023 12 21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김아영 기자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좋은 조례'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응급한 상황에서 먼 거리의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응급환자가 타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2023 12 21 ()

MBC 강원영동

삼척 도계 지역 소멸 대응 '유학생 유치'

배연환

삼척 도계 지역은 2025년 석탄공사 광업소의 조기 폐광과 맞물려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도계읍 도심과 떨어진 캠퍼스 위치 등으로 재학생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계캠퍼스를 도심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중 교육 센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척시 등은 현재 강원특별법에 유학생 비자 관련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명기/삼척시 기획조정실장
"강원도의 경우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도계전산정보고의 전환도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재학생이 30명 이하로 떨어진 만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성운 강원도의회원은 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하면 외국인 고등학생을 유치할 있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최근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
"학생 27명인데, 그대로 두면 폐교되는데 학교도 살리고 지역 공동화도 막고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국제직업고 전환에 대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민 정책 전담팀도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2023 12 22 ()

江原日報

22

철원 외수복합어울림센터 개관

김화권 문화 거점공간 기대

【철원】김화권역의 새로운 문화복지 거점공간으로 기대를 모은 외수복합어울림센터가 21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

철원군은 이날 이현종 군수, 박기준 군의장, 한종문 부의장, 엄기호 도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수복합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외수복합어울림센터는 총 사업비 130억원이 투입돼 올 3월 착공, 10개월여 만에 주민들을 맞이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놀이공간과



◇철원 외수복합어울림센터 준공식이 21일 이현종 군수, 박기준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교육공간, 군장병을 위한 휴게실 등이 들어섰다.

4층에는 작은영화관 ‘별빛’이 조성돼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에 갈말·철원동송권의 작은영화관이나 경기도 등을 찾아

영화를 봐야 했던 김화권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현종 군수는 “많은 주민이 센터를 찾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2023 12 21 ()

江原日報

[포토뉴스] 원제용 도의원 지방의정활동 최우수 도의원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의원 국제교류협회장으로 활동중인 원제용(국민의힘.원주) 도의원이 최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한중 사랑 나눔 송년의 밤에 참석,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선정하는 지방의정활동 최우수 도의원상을 받았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12
유순옥(비례) 도의원은 22일 오전 11시 동해 천곡

동에서 열리는 동지팔죽나눔및 문화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11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3일 오전 11시 강릉시 울

곡로 2866 박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열리는 신라오릉보존회박씨대종친회강릉시지부 총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19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2일 오후 6시 속초 아남

프라자대연회장에서 열리는 노학동 송년의 밤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13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은 22

일 오전 10시 30분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농업인인제군연합회 연말총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2 22 ()

01

도내 신생 기업 '3곳 중 1곳' 일년도 못 버티고 문 닫아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창업한 기업 3곳 중 한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기업 수도 3단계에 미치지 못하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2만9,466개였다. 전년(2

2020년 창업 기업 다음 해 '65%'만 남아... 7년 생존 '25%' 불과

만9,833개)보다 367개 감소했다. 2021년(-917개)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전체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2021년 14.2%에서 지난해 13.4%로 축소됐다. 신생기업들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버거웠다. 2020년 창업한 신생기업 중 2021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은 65.1%로, 1년 전(65.5%)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도내 창업기업 3곳 중 1곳은 1년 안에 문을 닫은 셈이다. 생존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졌다. 2년 차 55%, 3년 차 48.3%에 이어 5년 차 생존율은 34.2%에 그쳤다. 도내 신생기업이 7년까지 버티는 비율은 25.

3%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도내 소멸기업은 2만798개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 수는 2만4,000개였다. 최선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신생기업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수적 존재"라며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공간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자체가 기업 생태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01

오늘 강원 곳곳 기후위기 극복 선도 도민운동 확산

도-평창군-월정사-본지 공동주최
친환경문화제 3개 시·군서 개최

대한민국의 젓줄이자 허파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한 도민 운동이 확대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문화제'가 22일 평창과 강릉, 동해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 오대산월정사, 강원도민일보가 '녹색 겨울을 위해- We Go High for Green Winter'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린 '2023오대산 에코포럼'과 연계,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평창 진부면 송

어종합공연체험장에서 열리는 평창컵페인에서는 '오대산 에코선언문' 채택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 실천을 다짐한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올림픽'으로의 성공개최 의지도 확인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에 섰던 화천 출신 강원미래인재 양태환 기타리스트가 평창에서, 곱다한 밴드가 강릉에서 공연하는 등 문화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약속, 릴레이 환경정화 활동이 펼쳐진다. 김진형

■ 22일(금) 지역별 캠페인

◇강릉 △오전 11시 △월화거리 △주관: 관음사·월정사복지재단·강릉종합사회복지관 △축하공연 곱다한 밴드 ◇평창 △오후 1시 △진부면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관: 월정사노인요양원·탄소중립녹색전환 평창군시민위원회 △축하공연: 양태환 기타리스트, 도무형문화재 평창둔전평농악·이규송 ◇동해 △오전 11시 △시청앞 로터리(롯데리아 앞) △주관 동해 삼화사·월정사복지재단 삼화사노인요양원 △축하공연: 통기타 버스킹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02

도, 내년 국비 9조6000억원 확보 첨단산업 대거 반영

반도체·수소·바이오·미래차 분야
원주~여주 철도 등 SOC사업 포함
국가보훈광장 건립비 등 증액 불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엔 강원도 첨단산업 분야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국비 9조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고, 특히 정부예산안 확보액(9조5167억원)을 상향, 약 9조6000억원 규모로 잠정 집계되며 성과를 거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첨단산업 분야는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43억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12억원 900만원 △전기차 성능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

가시스템 기반 구축 15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56억원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강원도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반도체·수소·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과 직결된다.

강원도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이번달 6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총사업비 3117억원(국비 434억원·지방비 423억원·민간 231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도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국비 증액은 국회와 정부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했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사업은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다. 2027년

까지 총 사업비 309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와 각종 장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주요 SOC사업의 경우, △원주~여주 복선철도 건설 423억원 △국도5호선(신림~판부) 4차로 확장 184억 3500만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비 75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국비 증액이 불발된 사업은 △강원 국가보훈광장 조성 3억원(신규)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 14억원(〃) △제2경춘국도 480억원(증액·당초 20억원→500억원 목표)이다.

도는 22일 오후 도청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현황 등을 발표한다. 한편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덕형

올해 최다 방문 여행지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빅데이터로 보는 강원 관광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속초, 강릉, 양양 등 영동권 관광지가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관광지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이었다. 도내 최고 맛집 타이틀은 '강릉 동화가든'에 돌아갔다.

21일 본보가 한국관광데이터랩 지역별 데이터를 활용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강원지역 관광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인기 관광지 상위 10곳 중 8곳이 영동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외지인 내비게이션 검색 수 69만2,981건을 기록한 속초관광수

외지인 내비게이션 검색 69만건 인기 관광지 10곳 중 8곳 영동권 최고 인기 맛집 '강릉 동화가든'

산물시장이었다. 2위인 속초해변(27만 8,772건)과 비교하더라도 검색 수가 2.5배 차이 나는 압도적 수치다. 속초 관광수산물시장은 관련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5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속초해변에 이은 인기 관광지 3위는 썰비치삼척(17만6,606건)이었다. 이어 정선 강원랜드카지노(17만4,741건), 강릉중앙시장(15만3,831건), 양양 낙산사

(13만9,899건) 순으로 내비게이션 검색 수가 많았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도내 최고 인기 맛집은 강릉 동화가든이었다. 동화가든은 외지인 내비게이션 검색 수 16만9,960건을 기록했다. 2위에는 강릉 커피거리(16만4,980건), 3위 속초 봉포머구리(13만2,925건), 4위 강릉 테라로스커피(12만8,496건)가 오르는 등 맛집 분야에선 강릉이 강세였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를 찾은 외지인 방문객은 모두 1억4,101만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타시·도 중 도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도내 외부 관광객 10명 중 6명(59.9%)이 경기도민이었다. 경

기 다음으로는 서울(24.9%), 충북(5.9%) 순으로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강원자치도의 SNS인 급량은 486만1,6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난 수치다. 도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여행 동반자' 키워드는 가족, 친구, 직원이었다고, '여행 유형' 키워드는 힐링, 캠핑, 등산이었다.

석기동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은 "SNS를 중심으로 속초, 양양, 강릉 지역이 아름다운 풍경과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을 타며 수년째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다만 관광수요가 동해안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별 특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강원도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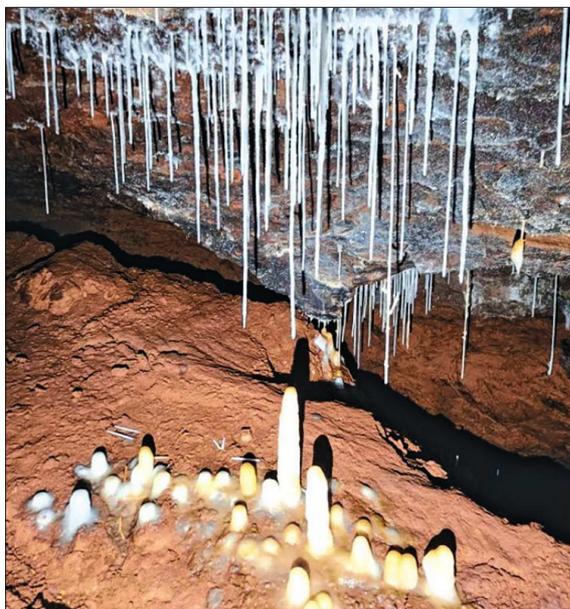
영월 분덕재동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터널공사 중단되나

터널공사 중 발견 보호조치 국내 첫 '곡석' 생성물 확인 군 "보존 계획·활용안 마련 공사재개 여부 신중 검토"

문화재청이 21일 터널공사 중 발견된 석회암동굴인 영월 분덕재동굴을 국가 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하면서 터널공사가 중단될 상황을 맞게 됐다. 총연장 약 1810m인 분덕재동굴은 2020년 1월부터 영월읍 영흥리-북면 마차리를 잇는 군도 9호선 998m 길이의 터널 공사 진행 도중 같은해 12월 407m 지점에서 발견됐다.

고생대 화석이나 오는 것으로 유명한 마차리층에서 발견된 동굴 중 최대 규모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 석회암 동굴 중에서는 4번째로 큰 규모이다.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모양과 굵기의 동굴생성물이 잘 발달돼 있으며, 특히 중력 방향을 무시하고 사방으로 뻗은 가느다란 직선, 그과나, 계단모양 등 여러 형태로 성장하는 곡석(曲石)이 국내에 선처를 발견돼 희소성이 매우 높다. 또 최대 약 3m 길이의 중유관 밀집도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며, 꽃 모양의 석화와 같은 동굴생성물도 다수 분포해 있어 매우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석회암과 흑색 이암(점토 퇴적암)이 번갈아 쌓여 생긴 침식과 융해작용으로 요철이 심한 동굴 통로 벽면은 마차리층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영월군은 동굴 발견 즉시 전면 공사 중지와 함께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기초조사 용역을 거쳐 강원도문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분덕재동굴 내부.

사진제공=영월군

재위원회의 현지 실사를 통해 가 등급 가치 평가를 받아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분덕재동굴은 공사 중에 보호조치가 이뤄진 동굴이 국가 지정유산이 되는 첫 사례"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기존 석회암 동굴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동굴생성물과 미세한 기록을 지닌 지형으로 학술·경관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분덕재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정식 지정되면 종합 학술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보존·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학적·경관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재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덕재동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방기준

강원도민일보

04

춘천시, 팹리스 반도체 산업 물꼬

디지털 바이오칩사업 56억원 확보
“관련 기업 창업·성장 촉진 지원”

춘천시가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비 56억원을 확보하면서 팹리스 반도체 산업으로 진입 교두보를 마련했다.

21일 춘천시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 처리, 시가 5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비는 56억원으로, 제외진단 지원센터 건립,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쓰

게된다. 춘천시는 바이오칩 사업은 반도체 개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팹리스 반도체 산업으로 진입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관계자는 “9월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제외진단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제외진단 인력양성도 올해부터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바이오칩 사업비 확보로 디지털 바이오칩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바이오칩과 인공지능 시설장비를 구축해 제외진단 기업에 진단 플랫폼 디지털화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경 ▶관련기사 9면

강원도민일보

동해안 해맞이 명소 17만명 운집 예상...안전에 '만전'

05

연말 KTX·해안가 숙박시설 매진
도·지자체 균중밀집 사고 예방
교통질서·저체온환자 등 대비

2024년 새해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해안권 지자체들은 해맞이 명소의 균중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과 질서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 강릉과 속초, 삼척 등 해맞이 명소에 약 17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안으로 향하는 열차는 일찌감치 매진이다. 오는 30일과 31일 서울 용산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KTX는 이른 오전편을 제외하면 벌써 매진된 상태다. 일출을 볼 수 있는 바닷가 숙박시설도 만실행렬이다. 한화리조트 설악 소라노의 경우 오는 30일과 31일 모든 객실의 예약이 마감됐다. 삼척 썰비치와 고성 펠피노 등 해안가 인근에 있는 리조트들도 같은 기간 빈 방이 없는 상황이다.

해맞이 명소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들도 사전 안전 점검은 물론 행사 당일 다중 인파로 인

한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도 최근 경찰청·소방청을 비롯 인파 밀집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시, 강릉정동진 등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각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지자체는 강릉 경포, 삼척, 동해, 속초, 양양 등 해맞이 명소에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4명을 파견해 오는 30일 사전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소방, 민간 봉사인력 576명은 각각 치안 유지와 교통 질서 유지, 한파로 인한 저체온환자 등을 대비한다.

특히 강릉은 오는 31일 경포와 정동진 일대에서 해넘이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은 버스킹 공연과 불꽃놀이가 준비된 이날 행사에 약 1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 무대가 설치되는 경포와 정동진 일대에 강릉시 공무원들과 각 지역 봉사단체 등이 동원돼 안전관리에 나선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포와 정동진에 1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민간 봉사단체와도 힘을 합쳐 안전한 축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해맞이 행사의 경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균중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 21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 대책 필요

-공공 어린이병원강원 등 전국 3곳만 없어 불편

야간과 휴일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도내에 한 곳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공공병원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3개 시도에만 개설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병원 경영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따라 개설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와 의료계는 소아·청소년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전라남도 순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설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울산,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만 지정 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병원은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 중에서 지정해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병원입니다.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59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에 1곳이 있었으나, 지난 6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강원 도내 의료기관은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에서 개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선 야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와 직원을 충원해야 해 운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비교적 낮은 소아 진료 수가도 병원 개설을 꺼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병원 미개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시민들은 병원이 문을 여는 아침부터 온라인 예약을 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원주와 춘천 소재 소아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약 30명 이상의 온라인 접수환자가 몰리기도 합니다. 환자 부모들은 밤에 문을 연 소아과 병원이 없어, 어린 자녀에게 해열제만 먹이며 버티기 일쑤입니다.

강원 도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고 의료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어린이 야간 진료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 등 지자체도 독려 차원을 넘어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개설 조건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진전된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2 22 ()

/ 21

극강 한파 추가 사망 피해 없어야

-지자체 모바일 신고 기다리지 말고 방문 확인, 즉각 해결 태세로

강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극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철원 영하 24.7도를 비롯해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2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오는 주말엔 강설이 예보되는 등 내륙과 산지를 가리지 않고 한파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월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흑한으로 인한 질환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해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12월 18일 제천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숨진 90대 영월주민 부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돼 추가 인명 손실을 우려합니다. 전국적으로 12월 1일부터 발생한 한랭 질환자가 8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한파경보 또는 한파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12월 23일 오후까지 내륙과 산지 중심으로 영하 15도 내외 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며칠전부터 눈이 내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등지에 이어 강원도 눈이 예보돼 한파와 폭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다양한 예방 활동 및 후속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한파는 저체온증상을 비롯해 동상, 심혈관계 및 호흡계 질환, 고혈압 등과 밀접합니다. 추운 집안 환경은 호흡기계 질환에 영향을 주고, 추위에 취약한 경우는 혈

전증을 만들어 급성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단지 외출을 자제하거나 옷을 꺼입는 것만으로 예방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기 한파는 인명 손실은 물론 경제적 피해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 등 생활 민원이 속출 중이며 도로 통제가 늘면서 일상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흥기로 변합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기습적인 큰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량비닐온실붕괴 원인입니다. 재해연보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년 동안 눈으로 인한 비닐온실 연평균 피해 면적은 230ha에 달합니다. 농업인 불안감 해소와 농작물 피해를 줄여 실효를 보려면 손쉽게 관리하는 적설 제거 장치가 투입돼야 합니다.

도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 및 안전위험 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안전신문고'로 연락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고령층 비율이 높은 강원은 포털이나 앱을 통한 신고가 원활하기 어렵습니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즉각 조치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도와 시군은 직접 방문과 확인으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세심하고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江原日報

2023 12 22 ()

/ 25

강원 의료기기 수출 역대 최고, '글로벌특구' 지정을

강원지역 수출품목 1위인 의료용 전자기기가 올해 역대 최대 누적 수출액을 경신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3년 11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액은 2억1,470만달러(환율 1,300.2원 기준 한화 2,791억여원)로 집계됐다. '수출 효자품목' 의료용 전자기기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0% 늘어난 4,443만달러(577억여원)를 기록했다. 의료용 전자기기의 1~11월 누적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4억4,564만달러(5,794억여원)로 역대 최대 누적 수출액을 새로 세웠다. 국내 의료기기 수출은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올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방역물품, 백신, 치료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0.3%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의료용 전자기기 수출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이에 힘입어 강원 수출액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됐다.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3년 연속 연간 수출액 27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수출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제 그 효과가 실물 경제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물가가 연속해서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집값 상승, 가계 부채, 30·40대 고용 부진 등 서민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들은 여전하다. 그러나 수출이 완연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신호로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수출 호조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골고루 온기가 감돌도록 불을 더 지펴야 한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재정 효과 등이 반영되면 경기가 예상보다 더 일찍 활기를 찾을 것이다. 내년 대한민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는 수출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초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회의'

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86억달러(약 11조원) 수준인 의료기기 수출 규모를 2027년에 세계 5위 수

출 1~11월까지 총 5,794억원 해외 판매
코로나19 특수 사라진 역경 속 값진 성과
강원바이오헬스, 정부 산업 육성에 제격

준인 160억달러(약 21조원)로 늘려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헬스 6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는 세계 시장 규모가 2,600조원에 달하는 유망 산업이다. 미래 성장과 직결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강원바이오헬스산업은 이미 큰 성과를 올리며 국내 최고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은 국내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이 그동안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강원바이오헬스산업에 날개를 달아준다면 정부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江原日報

2023 12 22 ()

/ 25

거꾸로 가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운전과 나아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 거꾸로 가고 있어 문제다. 즉,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이 내년엔 축소되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총 사업비는 2억9,0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6% 삭감된 2억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사업비의 30%는 국비, 70%는 지방비(도비 21%, 시·군비 49%)로 마련되는데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탓이다.

국비 지원액은 올해 8,700만원에서 내년에는 7,362만원으로 줄어든다. 강원지역에서는 지난달 ‘춘천 보행자 3명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80대 운전자가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0년 1,322건, 2021년 1,260건, 2022년 1,303건이었다. 예산을 늘려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법적 장치를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실차주행을 통한 실질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실차주행평가의 운용 형태는 다양하다.

일본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차등 적용해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의학적으로 운전 능력에 이상이 없더라도 안전운행 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도는 국가별로 시간, 속도, 도로유형, 지역, 보조장치 등 여러 조건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다. 현행과 같이 고령자 면허 관리가 유지 또는 취소방식(All or Nothing)으로만 운용된다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운전 관리가 모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면허 취소 시 최소한의 제한적 운전 가능성마저 배제되고 만다. 양자택일 방식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신체·인지기능 등의 저하로 일반면허가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간, 지역, 속도, 보조장치 등 다양한 제약을 부과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